

돈화

# 현유진 향촌 진흥 새 화폭 그린다

### 민생 중점에 초점을 두고 기반시설 및 공공봉사 수준 지속 향상



성산자촌, 도로 보완 작업에 드바쁘다.

올해이래 돈화시 현유진은 민생 중점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마을 환경을 개선했으며 기반시설 건설, 개조, 제고 대상과 공공봉사 수준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려 대중들의 획득감, 행복감, 만족도가 부단히 증강되었다.

“작은 공중화장실”이 ‘큰 민생’ 변화를 가져왔다. 현유진은 환경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외출할 때의 화장실 사용 및 위생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진구역에 80평방미터에 달하는 수세식 공중화장실을 신축 중이다. 준공되면 깨끗하고 편리한 화장실 환경을 마련하여 광범한 대중들의 생활 질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농촌 기반시설도 효과적으로 개선하게 된다.

담장을 새로 지었다. 마을의 모습을 개선하고 주거환경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며 아름다운 향촌 건설을 확대하기 위해 현유진은 자금을 쟁취하여 370미터의 담장을 새로 건설했다.



남하하촌에서 일꾼들이 도로 보완 작업에 한창이다.

이를 토대로 현유진은 계속하여 아름답고 살기 좋은 농촌 건설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주거환경 정돈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향촌 진흥의 바탕색을 아름답게 꾸미며 마을의 면모를 향상시킬 방침이다.

열공급망 개조로 민생의 ‘온도’를

더욱 높여주었다. 지난해부터 현유진 당위와 정부는 열공급망 개조 공사를 적극 추진하여 겨울철 집중열공급 질을 보장함으로써 백성들의 ‘행복온도’를 높였다. 현유진의 열공급망은 로화 등 원인으로 난방 효과에 엄중한 영향을 주었다. 열공급망 개조 공사의

순조로운 실사를 보장하기 위해 현유진 당위, 정부는 시공에 앞서 전면적이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여러차례 당위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함으로써 시공 안전, 질과 진도를 보장했다. 소개에 따르면 이번 열공급 도관 개조 사업에는 보일러 교체, 보일러실 재건, 열공급 도관 6,100미터 보수, 개조 등이 포함되었다. 열공급망 개조 공사가 완공되면 열공급망의 안전보장과 수송 능력이 더한층 제고되고 열공급의 질이 효과적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촌급 기반시설 건설로 환경을 개선하고 질을 제고했다. 현유진은 향촌 진흥전략을 새시대 ‘3농’사업의 관건으로 삼고 향촌 진흥이 효과를 보도록 전면 추진했다. 올해이래 현유진의 여러 행정촌에서는 자금을 적극 쟁취하여 기반시설 건설을 계획, 진의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탤다. 통계에 따르면 태평산촌 아름다운 이민 견본촌 건설 대상은 총 투자가 343만 1,541원으로 아스팔트도로면 1만 6,171평방미터, 세멘트도로면 2134.1평방미터, 담장 9,643미터, 가로등 200개를 건설하고 있다. 남하하촌 길길 포장 개조 대상은 총 투자가 50만원으로 3,350평방미터의 갓길을 개조하고 있다. 성산자촌 ‘100촌 제고’ 대상은 총 투자가 1,000여만원인데 도로 승격, 생활쓰레기 운반, 공중화장실 신축, 창고 신축, 농기계 주차자리 등 공사가 포함된다. 성산자촌 이민 대상은 총 투자가 74만 5,057원, 1,658미터의 세멘트도로, 2개의 간이배수로를 건설한다. 풍산촌 이민 대상은 총 투자가 53만 2,500원, 1,200미터의 세멘트도로를 건설한다.

정현관기자 / 사진 돈화시 당위 선전부



연길

## 원금사회구역 ‘쓰레기장’이 주차장으로 변신

“동네의 위생 ‘고질병’이 드디어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사회구역 주민들을 대표하여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일전, 연길시 공원가두 원금사회구역 몇몇 주민들은 가두판사처를 찾아 가두와 사회구역에서 여러 부분과 조를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한 데 고마움을 표하면서 감사기를 전달했다.

얼마전 만달화부, 자경원의 주민들은 원금사회구역을 찾아 자경원 서쪽의 폐기물 수거소 주변 위생여건이 열악하며 울타리 안에 많은 건축폐기물이 쌓여있는데 여름철 고온으로 인해 세균이 번식하고 있어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조성하고 있다고 반영했다.

원금사회구역에서는 이 문제를 공원가두에 반영했고 가두 사업일꾼들은 여러차례 현장을 방문, 조사한 후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가두에서

부르던 부문에서 시달’하는 사업기제를 통해 문제점을 정리하고 책임분담을 명확히 했다. 이어 공원가두의 주도하에 여러 부문에서 함께 정돈행동을 실시, 도시관리부문에서는 낡은 울타리 및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고 환경위생부문에서는 쓰레기를 처리하였으며 주택건설부문에서는 800여평방미터의 지면 경화 작업을 펼치고 공의 홍보 울타리를 설치하였으며 립업부문에서는 록화를 실시하였다.

1주일 동안 지속된 난관공략 행동을 통해 이곳 환경이 대폭 개선됐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장이 공공주차장으로 변신해 관할구역 주민들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완화시켰다. 아바타당지 주민 대표인 진녀사는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면서 “개조후 환경위생이 향상되고 주차 공간도 생겨서 너무 좋다.”라고 말했다.

/ 인민넷

룡정

## 당원간부와 군중들 동성용진 주거환경 정비에 전력

최근 룡정시 동성용진은 ‘세가지 견지’를 확고히 틀어쥐는 것을 목표로 당원간부와 군중들을 조직하여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전력으로 추진, 살기 좋고 아름다운 새 향촌을 힘써 건설하고 있다.

룡정시와 동성용진 당위, 정부의 주요 책임자를 ‘일선 총지휘’로 각 부문이 힘써 협력하고 상하가 련동하며 공동으로 관리하는 량호한 사업 구도를 형성했다. 각 촌은 진당위와 진정부의 배치 요구에 따라 당원간부들을 일제히 출동시키고 령을 집중하여 촌의 간선도로, 뉘골목, 배수도랑, 생활쓰레기 등에 대하여 정돈을 진행하여 실제 행동으로 촌민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었다. 동시에 광범위한 선전과 깊이 있는 동원을 통하여 아름다운 향촌을 함께 건설하려는 당원, 군중들의 강대한 합력을 응집시키고 ‘조직인도, 당원시범, 대중참여’의 량호한 분위기를 형성했다.

다양한 형식을 통해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광범위하게 홍보했다. 위챗 단체방, 화성기, 촌무게시판 등 경로를 리용하여 촌민들에게 건강한 생활방식과 위생생활습관을 보급하고 문명한 새 기풍을 수렴하도록 촌민들을 인도했다. 동시에 촌민들의 환경보

호의식을 일층 제고하기 위하여 전단지 배포, 쓰레기 분류 연습 등 방식을 통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리해하고 환경보호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모두가 참여하고 집집마다 행동’하는 량호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했다.

한편, 룡정시는 농촌 주거환경 정비 행동에서 ‘8가지 철거’ 사업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고 위험로후 주택, 폐창고, 화장실 등 건물에 대한 철거사업을 깊이 추진하고 철거 절차를 한층 더 규범화하여 철거사업이 질서있게 진행되도록 확보했다. 장기효과기제의 구축을 중시하고 ‘깨끗한 살림집’ 평의활동을 전개하여 촌민들의 적극성을 충분히 동원하고 그들로 하여금 주거환경 정비가 가져온 변화와 성과를 확실하게 느끼게 했다.

다음 단계에 룡정시 동성용진에서는 정책의 실시를 중시하고 여러 조치를 병행하며 농촌 주거환경 종합정비 난관과점점의 승리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한편 경험을 총화하고 기제를 보완하여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성과를 한층 더 공고히 하고 확장하게 된다. / 정현관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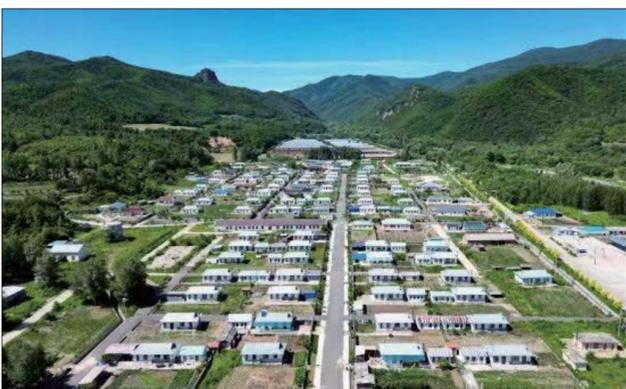
도문

## 정암촌, 길림성 민족마을 승격공사에 선정

최근 도문시 량수진 정암촌이 2024년 두번째로 실시되는 길림성 민족마을 승격공사 승격마을에 선정되었다.

도문시에서 30킬로미터 떨어진 정암촌은 면적이 66.11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데 그중 경작지 면적이 161.71헥타르, 립지 면적이 6362.21헥타르, 초원 면적이 17.06헥타르에 이른다. 최근년간 정암촌에서는 당건설 인술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생태마을 건설을 우선 순위에 놓고 기반시설 건설을 꾸준히 과학적으로 배치함으로써 환경이 정갈하고 친환경적인 살기 좋은 마을을 건설하는데 힘을 기울여왔다.

민족마을 승격 등 6가지 기반시설 대상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기반시설을 일층 강화했다. 기존의 파손된 세멘트도로를 아스팔트도로로 개조하고 배수구를 세멘트판으로 덮어 행인들이 부주의로 빠져 상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대중들의 출행에 편리를 도모했다. 동시에 촌 면모를 개선



했다. 농가의 지붕에 철관기와를 얹고 담장과 처마를 수리했으며 담벽 채색화를 설계했다. 기반시설 건설을 통해 촌의 공간 배치가 더 합리적이 되면서 정암촌은 면모가 일신되었다. 촌민들의 생활환경이 깨끗하고 정갈하던 데로부터 아름답고 살기 좋은 데로 변모하는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민족단결진보 선전교양 담벽 문화를 적극 육성하고 로년활동중심, 농가서옥 등 촌급 활동 장소를 승격시키는 등 생산, 생활 부대시설 건설을 강화함으로써 마을환경을 미화한 동시에 민족단결진보의 량호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 촌에서는 민족단결진보 선전을

촌민들의 여가 생활과 결부시켜 다양한 형식의 문화오락 활동을 깊이있게 전개하는 것으로 여러 민족 촌민들의 래왕, 교류와 융화를 힘써 촉진했다.

량호한 생태, 지역 우세를 빌어 거주하기 적합하고 관광하기 좋은 향촌 진흥 시범촌 건설 목표에 모를 박고 목이버섯 양식, 아로니아 재배 등 친환경, 무공해 산업을 발전시키는 한편 중앙계 재배 및 가공, 문화, 관광 등 3개 분야를 통합해 주변 진, 촌의 농가를 치부예로 이끌었다.

정암촌은 계속해 목이버섯 심층가공 및 관련 제품 가공, 레저관광, 민속문화 부각, 음식, 오락을 일체화한 지역 향촌 진흥 브랜드촌을 구축하고 새로운 제1, 제2, 제3산업의 융합 발전 구도를 형성해 산업진흥으로 향촌 진흥과 향촌경제의 다원화 발전을 추동할 계획이다.

정현관기자



안도

## 동산촌 ‘작은 정원’으로 ‘아름다운 동산’ 건설

최근, 안도현 송강진에서는 아름다운 정원(美丽庭院) 건설사업에서 ‘복수정산은 바로 금산은산이다.’라는 발전 리념을 깊이 실천하고 향촌 주거환경 정비와 정원경제 발전을 결부시켜 작은 채소밭과 과수원을 건설함으로써 향촌의 형상을 향상시킨 동시에 촌민들의 수익 증대를 촉진했다.

안도현 송강진 동산촌에 들어서면 도로가 깔끔하고 정원이 아담한 참신한 향촌 그림이 한눈에 들어온다. “저희 촌에서는 집집마다 과일나무를 심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미처 다 먹지 못해서 시장에 가져다 팝니다.”라고 촌민 장금영이 말했다. 정원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촌의 환경을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수입을 늘릴 수 있어 일거양득이다.



촌민 류수법의 정원은 그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정원으로 평가받고 있

다. 정원에선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있고 담장 밖에 재배한 여러 과수

나무들에서는 향기가 풍겨나온다. 어떻게 하면 촌민들을 정원 건설에 적극 참여시켜 향촌 미화를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 동산촌지도부는 많은 고민을 했다. “처음에는 모두들 흥미를 느끼지 못했는데 나중에 동산촌의 과수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니 자연히 열의가 충전했다.”라고 안도현 송강진 동산촌 기층 전문간부인 손명이 전했다.

동산촌에서는 자신의 정원 및 그 주변을 ‘생산기지’로 하여 채소, 과일 재배와 가공 사양 등을 하는 동시에 아름다운 정원 건설을 적극 전개하도록 촌민들을 인도하고 있다.

정현관기자



휘남

## 여러 향진, 재해복구재건 사업에 최선



루가조선족향의 당원간부들이 도로에 쌓인 진흙을 정리하고 있다.

련일 되는 자연재해에 직면하여 휘남현의 여러 향진 당위와 정부는 고도로 되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신속하게 행동하고 광범한 당원간부들을 조직해 군중들의 생활복지와 관련된 긴급 복구 행동에 전력을 다했다. 이는 당원간부들의 책임과 담당을 보여 주었고 재해지역의 군중들에게 따뜻함과 희망을 가져다주었다.

조양진당위는 군중들의 생산, 생활 조건이 하루빨리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 진과 촌, 합작사 3급 간부, 당원, 군중 800여명을 조직하여 재

해복구에 투신, 고향 재건을 위해 힘을 다했다.

8월 2일, 루가조선족향당위는 지도간부가 앞장서서 기관 간부와 촌의 두개 위원회 구성원을 조직하여 재해를 입은 촌민들의 가족과 정원을 청소해주고 도로에 쌓인 진흙을 정리하는 등 실제 행동으로 루가조선족향 군중들의 재산 손실을 감소시켜 기관 간부의 책임담당과 인민을 위한 정서를 보여주었다. / 정현관기자

